

한·중 대학생의 주의식과 공간사용방식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Consciousness and Space Usa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주서령*

Ju, Seo Ryeong

김도연**

Kim, Do Yeon

Abstract

Housing can be defined as the vessel containing human life and each country has considerably different form and culture of i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ociety's common cultural values of house selection, decision making, an various housing issues. Consequently, apply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is project seeks to explore the correlations between people and housing, and between society and housing, to better understand the thought and culture of the housing residents. In order for doing it, adopting cultural value of housing as a tool, a comparative cultural study of housing values in East Asia starting from Korea and China will be conducted. Through such a comparative cultural study, it will be ultimately possible to grasp the locality and uniqueness of specific cultures with more clarity. A survey using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126 Korean Students and 145 Chinese students who are studying at K University in Seoul on a random sampling basis. The results of survey are as follow. Both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gave higher values on neighborhood environment,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privacy and safety, and to be given a higher value. On the other hand, they gave lower values on the symbolism of social status. Korean university college students gave higher considerations in the list of <the accessibility to downtown commercial area>, <neighborhood reputation>, and <social status and identity> than Chinese. Chinese college students gave higher consideration in the list of <public facilities>, <scenic green area> and <high-technology facilities> than Koreans. Even though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findings, we can understand the identity of Koreans and Chinese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Keywords: Housing Consciousness, Housing Values, Space Usage, Korean, Chinese

주요어: 주의식, 주거가치, 공간사용방식, 한중 대학생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주거’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주거’가 물리적으로 가시화 된 형태인 ‘주택’에는 문화, 인간의 생활양식, 행태, 가치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주택은 그 나라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양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유럽, 아시아처럼 극단적인 문화권의 차이가 없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 매우 궁색한 형편¹⁾이다.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Ph.D
**정회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겸임교수, 이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Seo Ryeong Ju,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Kyung Hee Univ.,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E-mail: jcl@khu.ac.kr

이 논문은 2012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20120090).

이 논문은 2014년도 실내디자인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Raport(1966)는 주거에는 어떤 불변적인 요소와 가치, 이미지, 지각, 주생활양식 등을 표현하는 가변적인 요소가 있고, 가변적인 요소를 예측하는데는 서로 다른 문화간의

1) 연구자는 과거 말레이시아와 한국 두 국가학생들이 협업하는 주거설계 국제스튜디오에 튜터로 참여한 바 있는데, 말레이시아 학생 1명 한국 학생 1명이 한조가 되어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두 국가 학생들의 주거가치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확연하게 부각되었다. 단지 배치, 주동설계, 단위주호 설계 각 분야에서 각 나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은 매우 확고하였고, 서로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맹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배치에서 우리는 당연히 남향 배치가 절대적인데 반하여, 말레이시아에서는 남향 배치를 오히려 기피하려 한다. 이는 지나친 태양광의 유입이 이유이다. 또한 단위 주호의 실 배치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화장실과 주방의 위치였다. 우리나라의 중소형 평면에서는 이제 주방이라는 것이 감추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실내디자인의 요소로 매우 개방적인 배치와 디자인으로 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인간의 형태나 특성에 주거문화를 귀속시키는 <신인동형론적 사고>가 아직도 지배적이라, 주방을 인간의 향문에 비유하여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배치 상 주방이 어쩔 수 없이 현관 근처에 위치하더라도 폐쇄적으로 설계하려는 관습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화장실과 주방은 기계로 환기하고 외기에 면하는 창이 없지만, 말레이시아의 기후 조건은 기계 환기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 화장실, 주방은 반드시 외기에 면하는 창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거주형태를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스즈키(鈴木成文, 1989)도 주거문화 관점에서 주거양식이 명확하게 다른 문화권 혹은 반대로 주거양식이 매우 유사한 문화권과의 비교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혹은 유사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는 타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효율적이며, 우리나라 거주자의 특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Hall(1983)에 의하면 아시아 문화는 고맥락 혹은 고배경문화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권으로 서로의 생활환경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생활방식으로 독자적인 주거환경을 형성하게 되었다.

주거의 건축과 공간 사용방식에는 문화권마다 일련의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통해 주거의 형태, 공간사용 그리고 주의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의식은 지금까지의 거주경험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현재의 거주경험이나 거주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희망일 수도 있다. 주의식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질적인 문화와 거주조건, 세대 등에 의해 공통적으로 형성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화에 따른 비교연구의 첫 단계로 문화권이 비슷한 한국과 중국의 주의식과 공간사용방식의 차이를 한·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주의식과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로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K대학교의 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6월 약 2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한국인 대학생 150부와 중국인 유학생 150부를 배포하였으나 불성실하게 기입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한국대학생 126부, 중국유학생 145부를 최종 선택하였다. 특히 중국유학생의 설문지는 연구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가치, 주거선호, 주공간 태도를 포함하는 주의식과 공간사용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및 백분율,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II. 연구의 관점

1. 주거문화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축적시킨 사고방식과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Yang et al., 2006). 여기서 사고방식은 직접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사람들의 가치나 규범, 신념, 관습 등을 말하며 이 같은 내재된 문화가 관찰이 가능한 문화적 산물 또는 행동 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삶의 방식인 것이다. 한 사회의 가치관, 신념, 관습과 같은 정신적, 행동적 과정을 내포하는 문화는 사물과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생활의 기본단위인 주거공간은 물질적 실체로 인식되지만, 한편 사회의 제도이며, 기본적인 문화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Altman & Chemers, 1980). 즉 주거문화란 삶의 양식이 주택을 비롯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여러 장소의 형태와 공간에 관련된 방식으로 한 사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문화로서 성립되며 주택은 주거문화의 물리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Kang & Han, 2001).

주거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계관이나 가치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Value)’는 내적 요인이며,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태/행위(Behavior)’와 물리적 ‘공간(Space)’처럼 표현되어 나타나는 특징들은 외적 요인이다. 내면의 가치는 공간의 형태를 선택하게 하고, 형태는 다시 인간의 가치

Table 1. Measurement Tool for Questionnaire

| Contents | | Detailed Items |
|---------------------------|----------------------|-----------------------------------------------------------------------------------------------------------------|
| Household Characteristics | Demographic | sex, number of family |
| | Dwelling | house type, type of home ownership, house size, residence area, number of rooms, residence period, Use of rooms |
| Housing Consciousness | Dwelling Preferences | desired housing characteristics important housing spaces, important condition for housing choice |
| | Dwelling Values | external environment, symbolism, convenience, safety, aesthetics, comfort, health etc (total 33 items) |
| | Space Attitudes | values and attitudes regarding each space (total 24 items) |
| Space Usage | | communal activity, personal life activity, housekeeping, ritual activi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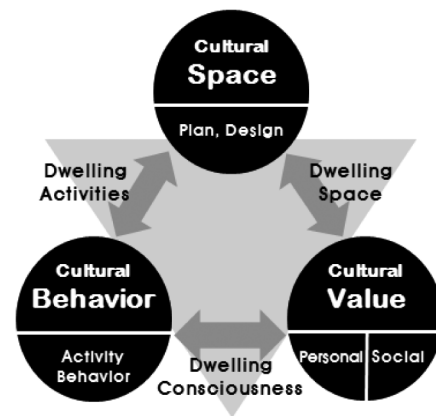


Figure 1. Residential culture system
Source: Researchers

에 영향을 미친다. 즉 주거문화는 물리적 주거환경과 행동양식 및 주의식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세가지 요소는 상호영향을 미치며 변화한다.

이에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주거문화의 대표적 구성요소인 ‘공간-가치-행태’와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분석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주공간-주생활-주의식²⁾”이라는 주거문화 구조를 체계화하여 접근하고자 하며 그 첫단계로 ‘주의식’과 공간사용방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주의식과 공간사용방식

주의식이란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으로 주거의 현재 모습으로 나타나며, 주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Yang et al.(2006)은 주택 또는 주거에 대해 가지는 잠재적, 정신적 기반을 의미하며 주거에 대한 가치나 규범은 물론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Kim(1996)은 거주자들이 새로운 주거나 주거환경을 창조해 나가도록 하는 주제적 에너지로 주의식은 거주자들의 주생활이나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주의식은 주거욕구와 주거가치, 주거관으로 대별하고 이를 주거선택 행위의 맥락에서 설명하거나(An & Yoon & Bae, 1998) 주거에 대한 의식 상태를 주의식으로 보고 주의견이나 주거관, 주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Kang & Kim, 1997; Kang & Yoon, 2009). 이처럼 주거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다양한 차원의 의식 또는 의견이 주의식이라는 사실에는 일치하지만 그 분류나 하위 개념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주의식은 거주자의 생활과 공간에 대한 잠재적인 생각과 주거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주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시대의 사회제도, 관습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공간을 구성하는 평면계획 뿐 아니라 주택의 외관, 소유의식, 생활방식, 공적공간과 사적공간과의 관계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의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주택 또는 주거에 대해 가지는 잠재적, 정신적 기반을 의미하며, 미시사회학적 접근(Morris & Winter, 1978)에 입각하여 주의식을 주거가치, 주거선호, 주공간태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공간사용방식은 주생활양식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하나로 주생활 행위를 크게 개인생활, 가족 단란 또는 가족 상호교류, 식사, 접대, 가사작업, 근린관계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들이 주거 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물음으로써 측정(울산발전연구원, 2008)된다. 주생활양식은 특정 시대나 지역, 계층, 그리고 주거에

대한 가치관이나 규범 같은 주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주거 내·외부공간의 성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III. 한·중 주거문화 비교

1. 한·중 자연환경 및 전통 주거문화 특징

한국은 아세아 대륙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반도국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은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대륙과 인접해 있으며, 전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온대 계절풍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습기가 많다. 한국의 주택은 더위에 적응하기 위한 마루와 추위를 이기기 위한 온돌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온돌은 겨울이 길고 추위가 심한 북쪽지방의 서민 주택에서 발달하여 점차 남쪽지방으로 전파되었고, 마루는 여름이 길고 무더운 남쪽지방의 상류주택에서 발달하여 점차 북쪽지방으로 전파되면서 확산되었다(Kang & Han, 2001). ‘좌식문화’의 생활방식은 실내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고 실내에서 맨발로 활동을 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였다. 한국의 전통가옥 형태는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ㄹ자형으로 안방 옆에 부엌공간이 딸려 있어 ㄱ자형, ㄷ자형이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 배치가 달리 나타난다.

중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960만 km²로 한반도의 약 44배에 달하며, 세계 육지 총면적의 6.5%를 차지한다. 중국 국토의 광활함은 우리와는 다른 공간개념과 시간개념을 형성하여 ‘만만디(慢慢地)’는 문화적 특성이 나타난다. 중국의 기후는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광대한 영토 탓에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³⁾하여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양한 주택이 존재한다. 추운 지방에서는 일조를 위하여 정원이 개방적으로 구성되며, 더운 지방에서는 일광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생활방식은 ‘입식문화’로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며, 一자를 기본으로 한 ㄹ자형(사합원)이

Table 2. Korea-China Cultural Differences in Housing

| | Korean | Chinese |
|--------------------------|----------------------------------------------------------|--------------------------------------|
| Plan Type | 一, ㄱ, ㄷ, ㄹ | 一, ㄹ |
| Climatic characteristics | Maru+Floor heating | Floor heating (炕) |
| Lifestyle | Shoes off Legless | Shoes on Upright |
| Distinction of domain | Men and Women | Generation |
| Kitchen | Heating and cooking Placed next to the master bedroom | Only Cooking The southwest corner |

3) 네이버 지식검색(<http://terms.naver.com/>);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다양한 기후

2) 주생활은 공간과 행위와의 관계를 주공간은 공간과 가치과의 관계, 주의식은 가치와 행위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주의식은 거주자의 생활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주행위는 공간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며, 주공간은 다시 주의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로 나타난다. 이는 별도의 부엌이 없이 간단한 부뚜막만 존재하기 때문에 증정을 중심으로 결합된 口자형만 나타난다. 중국은 수많은 소수민족이 모여 있는 광대한 면적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주거형태가 아예 다른 경우가 많으나 축(軸)과 대칭이라는 질서 원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한·중 아파트 평면 비교

한국과 중국의 현대아파트 평면의 공간특성에 관한 비교연구로는 Duan(2012), Hong(2009), Kim(2005), Lee(2004), Li(2007), Liang(2009), Ryu(2004), Shim & Kang & Cho(2000), Wu(2013)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과 중국의 아파트 단위평면을 공간구분론이나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공간구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한국과 중국 아파트의 평면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단위평면

한국의 공동주택 단위평면은 거실중심의 개방적 공간구성이고, 중국의 단위평면은 거실과 식사실 등의 가족공용공간과 개인적인 침실이 분리되는 공간 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평면은 전면 향을 확보할 수 있는 평면형이 발달하였고 면적의 증가에 따라서도 전면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은 면적당 주거밀도를 높일 수 있는 세장형 평면을 사용하고 있다.

2) 현관

한국은 좌식문화의 영향으로 현관 진입부분에 신발을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고 바닥에 단차를 두어 출입구와 거실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입식문화로 주택내에서 신발을 신고 활동하여 현관 진입부에 단차를 두지 않고, 바로 거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전실이라는 완충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3) 거실, 식당, 부엌

한국의 공동주택은 식당과 주방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거실을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주방을 독립적으로 구획하고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식당을 거실에서 분리하는 형태가 많아진다. 이는 식사를 커뮤니티의 중요한 행위로 여기는 생활방식과 기쁨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습관으로 인해 주방과 식당을 분리하여 배치한다.

한국은 전용면적의 증가에 비례하여 거실, 식당, 주방이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주방면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주방면적이 작다. 한국은 밥을 주식으로 여러 반찬을 곁들여 먹는 식문화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부엌의 보조공간으로 다용도실 또는 후면발코니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외식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주택에서 음식을 잘 조리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식당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장소가 아닌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로 제 2의 거실이며, 공간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다. 분양자료에서 2개의 거실로 명기하기도 한다.

4) 침실

침실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적은수의 침실로 계획하고 있으나 침실의 비율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전용면적에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침실면적도 증가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개별 침실 면적에는 변화가 없고 침실 수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한국에서는 주침실이 주호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침실 옆 부속실(욕실, 드레스 룸, 파우더 룸)의 비중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5) 다용도실

한국의 다용도실은 세탁실, 김치냉장고, 제사나 명절음식준비, 창고 공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다목적공간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용도실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대신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발코니의 일부공간이나 창고 등을 다용도실처럼 사용하고 있다.

6) 발코니

한국은 거실, 주방 등 공동공간 외에도 침실에 발코니를 설치한다. 반면 중국은 발코니 면적의 1/2을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외에 발코니를 설치하지 않는다. 거실에 설치한 발코니는 생활형 발코니라 부르고, 주방에 설치한 발코니는 서비스용 발코니라 부른다. 침실에는 발코니 대신 내닫이창을 설치하여 채광을 만족 시킴과 동시에 넓은 시야를 확보한다.

IV. 한·중 주의식 비교

1. 주거환경에 대한 일반적 특성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3>와 같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Var. | Levels | Korean (N=126) | | Chinese (N=145) | |
|------------------|-----------|----------------|------|-----------------|------|
| | | f | % | f | % |
| Sex | male | 46 | 36.5 | 43 | 29.7 |
| | female | 80 | 63.5 | 102 | 70.3 |
| Number of Family | 3 Persons | 95 | 75.4 | 132 | 91.0 |
| | 4 Persons | 16 | 12.7 | 8 | 5.5 |
| | 5 or more | 15 | 11.9 | 5 | 3.5 |
| | Average | 3.4 Persons | | 3.1 Persons | |

가족수는 한국의 경우 3인 가족이 75.4%로 가장 많으며, 평균 가족수⁵⁾는 3.4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유학생도 3인의 비율이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가족 수는 3.1인으로 한국대학생의 평균 가족구성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1자녀 정책⁶⁾으로 한 가정에 한

4) 한국과 중국학생 모두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본가(부모와 함께 사는 주거, 중국유학생들은 중국에 있는 본인의 집을 의미)의 주거환경에 대해 사항으로 질문하였다.

5) 한국의 평균 가족수는 1990년 3.7명, 1995년 3.3명 2000년 3.1명, 2005년 2.9명 2010년 2.7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중국도 1990년 3.96명, 2000년 3.44명, 2002년 3.39, 2010년 3.1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中國人口統計年鑒, 각년도, 2010년은 제6차 인구조사결과임).

Table 4. General Housing Characteristics

| Var. | Levels | Korean (N=126) | | Chinese (N=145) | |
|------------------------|--------------------------|----------------|------|-----------------|------|
| | | f | % | f | % |
| House Type | apartment | 86 | 68.2 | 58 | 40.0 |
| | detached house | 20 | 15.9 | 22 | 15.2 |
| | town house | - | - | 26 | 17.9 |
| | tradition house | - | - | 19 | 13.1 |
| | others | 20 | 15.9 | 20 | 13.8 |
| Type of Home Ownership | owned | 90 | 71.4 | 96 | 66.2 |
| | rent | 22 | 17.5 | - | - |
| | monthly rent | - | - | 38 | 26.2 |
| | others* | 14 | 11.1 | 11 | 7.6 |
| House Size | below 50 m ² | 10 | 7.9 | 25 | 17.2 |
| | 50~75 m ² | 26 | 20.7 | 12 | 8.3 |
| | 76~100 m ² | 48 | 38.1 | 23 | 15.9 |
| | 101~125 m ² | 29 | 23.0 | 32 | 22.1 |
| | above 125 m ² | 13 | 10.3 | 53 | 36.5 |
| Residence Area | Metropolitan Area | 77 | 61.1 | 67 | 46.2 |
| | Local Small City | 49 | 39.9 | 78 | 53.8 |
| Number of Rooms | 1-2 | 17 | 13.5 | 40 | 27.6 |
| | 3 | 62 | 49.2 | 26 | 17.9 |
| | 4 | 36 | 28.6 | 31 | 21.4 |
| | more than 5 | 11 | 8.7 | 48 | 33.1 |
| Residence Period | Less than 1 year | 13 | 10.3 | 25 | 17.2 |
| | 1-3 years | 36 | 28.6 | 37 | 25.5 |
| | 3-6 years | 21 | 16.7 | 36 | 24.8 |
| | 6-10 years | 26 | 20.6 | 23 | 15.9 |
| | Over 10 years | 30 | 23.8 | 24 | 16.6 |
| Use of Bedroom | Alone | 99 | 78.6 | 108 | 74.5 |
| | Share with others | 27 | 21.7 | 37 | 25.5 |

*The other types in home ownership in Korea is the combin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a security deposit. In China, the other type is public rental+others.

자녀만 가지는 것을 정부에서 법제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형태는 한국의 경우 68.2%, 중국은 4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 모두 공동주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공동주택이외에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통주택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택소유형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자가의 형태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월세 보다는 전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개념이 없는 중국은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⁷⁾

주택면적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75~100 m² 미만(22~30 평형대)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은 125 m²

6) 중국은 1979년 6월 18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5회 인민대회 2차 회의에서 한자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년 11월 15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여 부모 중 1명만 독자여도 두 자녀를 낳을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7) 중국의 임차제도에 대한 규정 및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2년이라는 유지기간은 동일하지만, 한국의 전세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월세 개념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http://baike.baidu.com>, 2014.05.28검색, 검색어: 租賃).

이상(37평 이상)의 주택이 36.5%로 더 넓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의 수에서와 같은 결과로 20~30평형대 공동주택의 경우 보통 3개의 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국은 3개(49.2%), 중국은 5개 이상(36.5%)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국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넓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유학생의 경우 자비유학⁸⁾이 대부분으로 중국가정의 평균적인 경제수준보다 높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⁹⁾들이 많기 때문에 더 넓은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평균 거주년수는 한국 대학생은 5.2년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유학생은 평균 4.8년으로 상대적으로 한국대학생에 비해 거주년수가 짧게 나타났다. 방의 사용은 한국과 중국 모두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한국이 방소유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가구당 평균 사용방수는 2000년 3.4개에서 2005년 3.6개, 2010년 3.7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2010년 2.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가구원수에 비해 사용방수가 남아 혼자 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주거선호

주거선호는 가족차원의 주거규범으로 주거가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주택환경과 근린환경 측면에서 특정 주거특성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선호정도를 파악하였다.

1) 희망하는 주택환경

희망하는 주택에 관해 알아본 결과 주택의 입지는 한국과 중국 모두 도심과 도시근교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대학생들이 도시근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8) 중국국제교육뉴스발표회 정보에 따르면, 해외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으며, 그 중 자비유학생이 90% 이상이다. 한국유학시 중국돈 10만 위엔을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9) 2014년 중국통계청(<http://www.stats.gov.cn>)이 발표한 2013년도 공기업/사기업 직장인 연평균임금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기업 연간 51,474위엔, 사기업 연간 32,706위엔으로 평균 연 42,090위엔, 월 3507위엔(한화 약 55만원)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중국 임금행정부 평균임금 일람표(中?—?行政?平均?—?表, 2012년 기준)에 따르면, 북경 4,976위엔, 상해 4,509위엔, 절강 3,901위엔 순이다. 북경과 상해의 경우, 한화로 평균 약 8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볼 때, 한국의 학비가 평균 716만원(한국 소비자단체 협회 '2014학년 서울지역 4년제 대학교 등록금 순위' 조사)임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학생들의 유학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최근 경제력이 있는 중국인은 도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심형 고급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의 고급 빌라 혹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거리 이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적은 것을 들 수 있다. 최근까지도 기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30시간 정도의 장거리 이동은 물론, 비행기로도 2-3시간 이상씩 국내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심에서 1시간 안팎의 이동은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은 1가구 1주택과 같은 법률 사항이 없어 다량 주택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와는 별도로 생활환경 자체가 좋은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짙다.

Table 5. The Desire for Housing Characteristics

| Variables | Korean (N=126) | | Chinese (N=145) | | |
|-----------------|-----------------------------|-----|-----------------|-----|------|
| | f | % | f | % | |
| Location | downtown | 39 | 31.0 | 53 | 36.6 |
| | suburban | 62 | 49.2 | 60 | 41.4 |
| | quiet rural area | 14 | 11.1 | 16 | 11.0 |
| | resort area | 9 | 7.1 | 15 | 10.3 |
| | others | 2 | 1.6 | 1 | 0.7 |
| House Type | apartment | 37 | 29.4 | 56 | 38.6 |
| | single house | 50 | 39.7 | 56 | 38.6 |
| | studio apartment | 4 | 3.2 | 5 | 3.4 |
| | high-rise APT | 17 | 13.5 | 6 | 4.1 |
| | row house | 3 | 2.4 | 8 | 5.5 |
| | town house | 15 | 11.9 | 9 | 6.2 |
| | traditional house | - | - | 5 | 3.4 |
| | owned | 110 | 87.3 | 108 | 74.5 |
| Home Ownership | rent | 15 | 11.9 | 24 | 16.6 |
| | monthly rent | - | - | 9 | 6.2 |
| | public rental | 1 | 0.8 | 4 | 2.7 |
| House Size | less than 50 m ² | 3 | 2.4 | 8 | 5.5 |
| | 50~75 m ² | 16 | 12.7 | 8 | 5.5 |
| | 75~100 m ² | 52 | 41.3 | 18 | 12.4 |
| | 100~125 m ² | 41 | 32.5 | 40 | 27.6 |
| | over 125 m ² | 14 | 11.1 | 71 | 49.0 |
| Number of Rooms | 1-2 | 9 | 7.1 | 11 | 7.6 |
| | 3 | 49 | 38.9 | 36 | 24.8 |
| | 4 | 44 | 34.9 | 41 | 28.3 |
| | 5 | 14 | 11.1 | 28 | 19.3 |
| | more than 6 | 10 | 7.9 | 29 | 20.0 |
| | average | 3.7 | | 4.2 | |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중국 유학생들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이 같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많음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함을 선호하다고 할 수 있다.

희망하는 소유형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자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하게 중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16.6%가 전세를 희망하고 있어 한국 유학생들을 통해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주택의 면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20~30평형대의 주택을 희망하고, 중국은 40평대 이상을 희망하고 있어 중국 유학생들이 더 넓은 면적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하는 방의 개수는 한국은 3개(38.9%, 평균 3.7개), 중국은 4개(28.3%, 평균 4.2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대학생보다 큰 주택과 많은 방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

2) 중요 공간

주택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에 대하여 알

아본 결과 <Table 6>와 같이 양국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Important Housing Space

| Variables | Korean (N=126) | | Chinese (N=145) | |
|-----------------|----------------|------|-----------------|------|
| | f | % | f | % |
| Living Room | 78 | 61.9 | 64 | 44.1 |
| Master Bedroom | 25 | 19.8 | 41 | 28.3 |
| Kitchen | 6 | 4.8 | 14 | 9.6 |
| Dining Room | 2 | 1.6 | 3 | 2.1 |
| Children Room | 7 | 5.6 | 4 | 2.8 |
| Bathroom | 8 | 6.3 | 19 | 13.1 |
| $\chi^2=12.362$ | | | | |

한국과 중국 모두 거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부부침실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61.9%가 거실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중국은 44.1%로 나타나 한국이 거실을 더 중요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 비해 주침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3) 주택 구입시 중요한 근린환경 조건

주택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린환경은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 Rank of The Important Condition for Housing Choice

| Variables | Ranking 1 | | Ranking 2 | | Ranking 3 | |
|----------------------------|----------------|-----------------|----------------|-----------------|----------------|-----------------|
| | Korean (N=126) | Chinese (N=145) | Korean (N=126) | Chinese (N=145) | Korean (N=126) | Chinese (N=145) |
| quiet & clean environment | 37(29.4) | 60(41.4) | 29(23.0) | 37(26.2) | 18(14.3) | 17(12.1) |
| traffic convenience | 63(50.0) | 34(23.4) | 39(31.0) | 54(38.3) | 16(12.7) | 18(12.9) |
| near the working area | 11(8.7) | 9(6.2) | 13(10.3) | 5(3.5) | 22(17.5) | 19(13.6) |
| neighborhood of parents | 1(0.8) | 6(4.1) | 2(1.6) | 4(2.8) | 7(5.6) | 1(0.7) |
| investment | 2(1.6) | 9(6.2) | 2(1.6) | 9(6.4) | 9(7.1) | 21(15.0) |
| near schools | 1(0.8) | 2(1.4) | 11(8.7) | 7(5.0) | 12(9.5) | 15(10.7) |
| interior & exterior design | 9(7.1) | 20(13.8) | 18(14.3) | 15(10.6) | 22(17.5) | 26(18.6) |
| community facilities | 2(1.6) | 5(3.4) | 12(9.5) | 10(7.1) | 20(15.9) | 23(16.4) |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위치(31.2%), 조용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22.2%), 주택 내·외부 디자인(13.0%)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 조용하고 깨끗한 주

11) 2010년 12월 중국 주방·성향건설부(中國住房和城鄉建設部部長)가 관련 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도시인구당 평균 건설면적은 약 30 m². 농촌인구당 평균면적은 약 33.6 m²이다. (<http://www.chinanews.com> [中國新聞網] 2010년 12월 29일자 기사)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1인이 확보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감 자체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변 환경(26.8%), 교통이 편리한 위치(24.9%), 주택 내·외부 디자인(14.3%)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들은 한국 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의 경우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장과의 거리는 한국대학생들이 더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미래의 투자전망에 대해서는 중국유학생들이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대학생들은 교통이 편리한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선택조건이 되며, 중국유학생은 조용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이 중요한 선택조건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한중 대학생들은 추후 변경이 가능한 주택의 내외부 디자인보다는 주택의 위치적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¹²⁾

3. 주거가치

주거가치란 개별 소비자가 주택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주거요건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기준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가치 33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고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의 주거가치를 비교한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양국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12)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공시설이용>, <친구, 친척거리>, <자연환경¹³⁾>, <금융조건>, <첨단시설>, <CCTV>의 항목에서는 한국대학생에 비해 중국유학생들이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통학과 통근>, <도심상권>, <사회적 지위>, <경제적 신분상징>, <편안함>, <동네평판>은 중국유학생에 비해 한국대학생들이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유학생들은 한국대학생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주택의 거주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반해 한국대학생들은 중국유학생보다 주택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¹⁴⁾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보통 이상의 높은 고려정도를 보이고 있어 주거선택이라는 구체적 경험은 적으나 주거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고려항목을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 <직장의 접근성>, <주변 편의시설>, <내

Table 8. Housing Values

| Rate this item | Korea | | China | | t-value |
|---------------------------|-------|------|-------|-------|---------|
| | M | SD | M | SD | |
| public transportation | 4.69 | .530 | 4.55 | .655 | .061 |
| distance of commute | 4.49 | .628 | 4.27 | .750 | .010** |
| convenience and amenities | 4.23 | .657 | 4.35 | .732 | .147 |
| public facilities | 3.83 | .874 | 4.19 | .745 | .000*** |
| educational environment | 3.59 | .867 | 3.76 | .876 | .114 |
| Feng Shui | 3.11 | .961 | 3.27 | 1.095 | .208 |
| distance to relatives | 2.87 | .836 | 3.21 | 1.006 | .003** |
| commercial facility | 3.76 | .814 | 3.39 | 1.022 | .001*** |
| natural environment | 3.83 | .833 | 4.23 | .745 | .000*** |
| social position | 3.29 | .918 | 3.02 | .946 | .017** |
| economical status | 3.17 | .846 | 2.80 | .884 | .000*** |
| investment | 3.28 | .991 | 3.44 | .929 | .190 |
| social awareness | 2.93 | .969 | 3.03 | .978 | .374 |
| financial conditions | 3.28 | .989 | 3.50 | .859 | .045* |
| easy to sell | 3.54 | .982 | 3.51 | .873 | .801 |
| view & vista | 3.97 | .755 | 4.08 | .867 | .276 |
| high technology | 3.45 | .957 | 3.85 | .853 | .000*** |
| interior design | 3.93 | .758 | 4.04 | .778 | .230 |
| space layout | 4.05 | .722 | 4.21 | .716 | .069 |
| ventilation | 4.53 | .615 | 4.52 | .657 | .894 |
| soundproof | 4.46 | .588 | 4.38 | .708 | .279 |
| exterior material | 4.03 | .734 | 3.86 | .773 | .055 |
| exterior design | 3.84 | .840 | 3.83 | .853 | .885 |
| safety | 4.66 | .538 | 4.64 | .633 | .800 |
| interior facilities | 4.43 | .740 | 4.56 | .695 | .119 |
| health | 4.64 | .530 | 4.64 | .703 | .991 |
| security | 4.69 | .559 | 4.52 | .678 | .028** |
| private | 4.52 | .677 | 4.48 | .697 | .629 |
| CCTV | 4.08 | .793 | 4.33 | .831 | .012** |
| good neighborhood | 3.73 | .821 | 3.80 | 1.001 | .532 |
| community outdoor space | 3.28 | .888 | 3.45 | .932 | .125 |
| level of neighborhood | 2.91 | .963 | 3.06 | .941 | .197 |
| neighborhood reputation | 3.45 | .794 | 3.03 | .935 | .000*** |

*p<.05, **p<.01, ***p<.001

부공간배치>, <통풍과 환기>, <방음>, <안전성>, <소방 및 내부설비>, <건강>, <편안함>, <사생활보장>, <CCTV>이다. 이에 반해 주택의 <사회적 지명도>, <이웃수준과 지위>, <경제적 신분을 상징>은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대학생들은 편리한 교통과 근린환경, 프라이버시

12) 앞의 각주에서도 월 임금에 대해 논했지만, 미래 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 현재 중국 내 대도시의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청장년층의 소득은 현저히 부족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갖가지 대안 중, 부동산의 월세 등은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택을 자산수단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도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 퇴근시간이 빠르고 관계중심적인 생활문화를 가진 중국인들에게 가족, 친구, 지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시간적 확보와 더불어 직장과 분리되는 생활환경 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

13) 중국은 한국의 어린이공원 대신에 유치원을 근린단위(소생활권) 중심에 설치하고 있다. 이를 보면 녹지공원의 설치보다 편의시설을 더 중요한 요소로 계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 거주 지구 계획 설계 규정”에서 녹지율은 신도시 ≥30%, 재개발 구역은 ≥25%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단지면적 3/10 이상의 녹지면적을 확보하고 300~500세대 1개소 이상, 500세대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500세대마다 1개를 그 이상은 옥외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h & Shi, 2010). 즉 중국 학생들은 한국과 비교하여 부족한 녹지환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14) 위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요소들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북경,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 호구(戶口: 거주 등록)를 가진 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도심 호구를 획득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끼리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권을 형성해야 하는 특성상, 심리적 안정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본토에서도 도심으로 유입된 지방 출신 엘리트들은 향후 귀향을 목표로 하는 이가 상당하고, 도심생활에서도 그 자체를 즐기기도 고향에서와 같은 안정적 생활환경을 유지하여 각박한 도심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건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와 안전성 등에는 높은 가치를 부여한 반면 주택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성 등은 낮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wang(2000), Shim(2012), Kim and Noh(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문화적 배경은 서로 다르나 대학생이라는 비슷한 사회적 위치가 요구하는 주거가치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은 차세대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로서 추후 주택건설시 이들 항목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을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4. 주거공간 태도

주거공간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와 관련된 결과물이다.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배치와 구성은 달라진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공간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9>과 같다.

Table 9. Attitudes about Space

| | Rate this item | Korean | | Chinese | | t-value |
|---------------------------|----------------------------------------|--------|-------|---------|-------|---------|
| | | M | SD | M | SD | |
| Living Room | centrally located | 3.28 | .885 | 3.38 | .810 | .384 |
| | L-DK | 2.62 | .964 | 2.97 | .878 | .005** |
| | Most to be larger | 3.14 | .931 | 3.52 | .997 | .004** |
| | south orientation | 3.23 | .872 | 3.38 | .822 | .194 |
| Kitchen | family room needed | 2.99 | .971 | 3.55 | .937 | .000*** |
| | large-space | 3.42 | .815 | 3.66 | .850 | .027* |
| | separate kitchen | 3.11 | .891 | 3.21 | .983 | .443 |
| Dining Room | location should be backside of a house | 2.72 | .839 | 2.88 | .739 | .135 |
| | south orientation | 2.81 | .849 | 2.95 | .735 | .171 |
| | D-K | 2.85 | .968 | 3.21 | .913 | .004** |
| Master Bed-room | central location | 2.72 | .980 | 2.80 | .877 | .508 |
| | inside location | 3.57 | .945 | 3.53 | .886 | .742 |
| | independence | 3.94 | .855 | 4.08 | .765 | .219 |
| Room | seperated from children's rooms | 3.57 | 1.019 | 3.42 | .871 | .226 |
| | Hobby room need | 3.72 | .938 | 3.55 | .977 | .174 |
| | appropriate number of room | 3.97 | .822 | 3.78 | .905 | .105 |
| Bath-room | enough storage | 4.32 | .703 | 4.10 | .768 | .028* |
| | relax place | 3.05 | .949 | 3.73 | .823 | .000*** |
| Separate Living Room Need | face to the outside air | 3.34 | .968 | 3.25 | .884 | .465 |
| | Utility Room needed | 3.70 | .935 | 3.79 | .902 | .427 |
| Family Activity in K & D | Separate Living Room Need | 3.74 | .792 | 3.80 | .723 | .562 |
| | Utility Room needed | 4.09 | .730 | 3.86 | .844 | .028* |
| Balcony Needed | Family Activity in K & D | 3.91 | .793 | 4.25 | .766 | .001*** |
| | Balcony Needed | 4.02 | .772 | 3.95 | 1.008 | .591 |
| Seperate Laundry Space | Seperate Laundry Space | | | | | |

*p< .05, **p< .01, ***p< .001

각 공간의 가치와 태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9개 항목으로 7개 항목에 대해 중국학생들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학생들은 거실에서 식사공간이나 부엌이 보이지 않아야 하

고, 거실의 크기가 가장 넓어야 하며, 가족들이 함께 TV 시청과 음악감상 및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별도의 가족실이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한국학생들에 비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¹⁵⁾ 또한 부엌은 넓어야 하고, 식사공간과 조리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⁶⁾ 이에 반해 한국학생들은 각 침실공간에 수납공간이 필요하고, 부엌과 식당은 가족단란의 장소라는 생각을 중국학생들에 비해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실과 식당, 부엌의 연계방식¹⁷⁾ 차이로 각 공간의 사용경험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Table 10. Representative Cases of Unit Plans



<Table 10>와 같이 중국은 LD-K형과 L-D-K형으로 부엌을 독립적으로 계획한다. 이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식생활로 다른 실과 한 공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

15) 전통적으로 중국 전통 사합원의 구성 방식은 둘러싸의 공간으로 외부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됐다(Hong & Kim, 2005). 그 내부의 중심에는 원(院, 우리의 마당 개념)의 중정(中庭)이 있고, 원과 대응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청당(廳堂), 혹은 대청(大廳)이다. 또한 사합의 중심축에 다른 건물들을 압도하는 높은 건물 정방의 한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청당이다. 그만큼 청당은 주택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주체(主體)의 역할을 담당한다. 예로부터 중국의 공간 배치는 취침/식사/취미생활/가사활동과 같은 행위를 기준으로 분리할 때, 생활에 있어서는 청당 외에도 중정(中庭)을 중심으로 당(堂), 서재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현재의 가족실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Liu, 2007).

16) 조리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념적으로 본다면 식사는 중국인의 생활문화에서 제 1로 꼽힌다. 한국은 의-식-주(衣-食-住)라 하지만, 중국에서는 식-주-의(食-衣-住)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사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고 습식하는 행위에 체계가 생겼고, 공간 역시 분리되었으며, 행위자 역시 달랐다. 음식을 만들어내는 노동 자체는 잡업(雜業)에 해당되던 것으로 공간 역시도 하인들이나 가사활동이 주로 일어나던 곳에서 진행되었던데 반해, 습식을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청당(廳堂)에서 서열에 따라 주인을 중심으로 위계에 맞춰 자리를 배열하여 격식을 갖추었다.

17) 한국은 L-DK형이 대부분으로 2000년대는 L-DK형이 83.3%, 2010년대는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2000년대는 LD-K 형태가 66.7%, 2010년대에는 LD-K 형태가 100% 이었다(Duan, 2012).

엷은 반드시 외기에 면하는 창을 확보¹⁸⁾해야 한다. 이러한 식문화와 공간경험으로 인해 중국학생들은 부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엌의 분리는 그들의 생활습관과 음식 및 조리습관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엌 면적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추후에는 더 넓은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¹⁹⁾된다. 또한 중국인들은 식사를 커뮤니티의 중요한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거실과 식당의 일치형 보다는 거실을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L-DK형, LDK형이 주를 이루며 주방면적과 식당면적이 한 공간으로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어, 한국학생들은 부엌과 식당을 분리된 공간이 아닌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가족단위의 장소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달리 부엌과 식당이 가족 모임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2의 거실역할을 하는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과 중국 양국모두 4점 이상의 높은 가치를 나타낸 항목은 침실의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이다. 한국은 4.32, 중국은 4.1로 매우 높게 나타나 한국과 중국 모두 침실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계획함이 요구되는 바이다. 중국은 부부침실의 독립성 요구가 4.08로 높게 나타났고, 주택에 발코니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한국과는 달리 발코니 면적의 1/2를 면적에 산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돌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발코니 설치에 대한 높은 가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발코니를 내부공간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로 보여진다.

V. 한·중 공간사용방식 비교

한국과 중국의 주공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공간사용방식을 살펴보았다. 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주생활 행위는 그 공간의 기능을 설명하게 되며 특성을 결정짓게 된다. 다기능적이어서 하는 공간과 특정한 기능 충족으로 계획되는 공간의 크기 및 배치계획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즉, 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주생활행위의 종류 및 빈도에 따라 그 공간의 크기가 설정되며 행위내용의 연관관계가 깊은 다른 공간과 근접하게 된다(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9) 주생활행위는 가족이나 거주자 개개인의

생활특성에 따라 달라지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행위, 개인생활행위, 가사노동행위, 의례행위로 구분하고 각 행위가 어느 공간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1. 가족공동행위 공간

가족공동의 생활행위는 <Table 11>과 같이 식사행위, 손님접대, 가족모임 및 단란 행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가족모임 및 단란 행위는 양국 모두 거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가족들의 모임장소로 식당(17.3%)과 마당(12.4%)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당이 단순히 가족들의 식사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제 2의 거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손님접대 장소로 한국과 중국모두 거실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은 주거공간이 아닌 외부장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가 23.7%로 나타나 양국의 접대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Table 11. Public Activity Space Usage

| | | R | L | D | K | Y/RT | O | total |
|------------------|---|--------------|---------------|---------------|--------------|--------------|--------------|-------|
| meal | K | | 21 (16.7) | 75 (59.5) | 30 (23.8) | | | 126 |
| | C | 3 (3.1) | 7 (4.8) | 121 (83.4) | 8 (5.5) | 2 (1.4) | 4 (2.8) | 145 |
| guest reception | K | 5 (4.0) | 106 (84.1) | 5 (4.0) | 2 (1.6) | | 8 (6.3) | 126 |
| | C | 8 (5.9) | 80 (59.3) | 8 (5.9) | | 7 (5.2) | 32 (23.7) | 135 |
| family gathering | K | | 113 (89.7) | 8 (6.3) | 5 (4.0) | | | 126 |
| | C | | 102 (70.3) | 25 (17.3) | | 18 (12.4) | | 145 |
| chat & play | K | 6 (4.8) | 120 (95.2) | | | | | 126 |
| | C | 16 (11.0) | 100 (69.0) | 3(2.1) | | 19 (13.1) | 7 (4.8) | 145 |
| watching TV | K | 4 (3.2) | 122 (96.8) | | | | | 126 |
| | C | 26 (17.9) | 119 (82.1) | | | | | 145 |

Note. R=Bed room, L=Living Room, D=Dining Room, K=Kitchen, Y=Yard, RT=Roof top, O=Outside

18) '부엌은 직접태양광선, 자연통풍이 있어야 하며 입구부근이면 적합하다'라고 주택설계표준에 명시되어 있다.

19) 중국의 부엌은 전용면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의 크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한국에 비해 부엌공간의 면적이 작다(Shim & Kang & Cho, 2000). 현재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는 중국인이 많기 때문에 부엌의 면적이 협소하나 서양식 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하여 점차 부엌의 크기가 커질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라 할 수 있다.

20) 중국인들은 손님접대(하오커: 好客)를 좋아하기 때문에 손님 초청시 요리의 가짓수, 요리와 술의 양 등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으며,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대개 식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식사 질을 매우 중요시한다. 중국인들은 대략 10가지 요리에 국, 8가지 냉채, 그리고 후식까지 대략 20가지 음식을 먹는다. 시간으로 봐도 우리는 1~2시간이면 식사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만, 중국인은 식사에 최소한 2~3시간이 걸리고, 식사가 끝나면 그날의 접대는 대부분 끝이 난다(<http://www.globalwindow.org/>전문가에게 듣는 중국 투자 포커스).

식사행위는 한국의 경우 식당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있으나 부엌(23.8%), 거실(16.7%)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주로 식당에서 식사행위를 하며 거실과 부엌은 매우 미비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당과 부엌의 관계가 한국과 중국이 명확히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평면은 보편적으로 부엌과 식사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배치되는 반면 중국의 평면은 주방과 식사실이 독립되어 나타난다. 이는 중국인들의 생활과 요리방법, 식사를 중요한 행위로 인식하는 생활습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부엌은 더 이상 가사작업공간이 아닌 가족공동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생활행위 공간

개인생활행위는 주로 가족원들의 취침과 휴식, 학습과 놀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행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침실공간의 사용방식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침실의 크기로 거주자를 구분하고 있다. 연장자 순으로 공간을 배분하여 가장 큰 침실은 부부침실로 사용하고²¹⁾ 두 번째 큰 침실을 첫째 자녀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모두 유교문화의 관념이 남아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안방은 가족의 단란 및 식사, 손님접대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Table 12>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부부중심의 전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방이라는 관념²²⁾이 남아있어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취침공간으로 한국은 침실 2(77%)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침실 2(60%)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습공간으로 한국은 침실 2(51.6%), 침실 3(36.5%)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침실 3(46.2%), 침실2(29%) 순으로 나타나, 한국은 자녀의 취침 및 학습공간이 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중국은 자녀의 취침공간과 학습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1) 중국은 문화대혁명(1965-1976)시기에 전통에 대한 일절의 단절을 선호했지만, 유교적 윤리도덕과 종법관념으로 형성된 사합원(四合院)에서의 오랜 생활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합원 안에서의 가족관계는 사회관계와 마찬가지로 존비가 분명하고 장유유서의 규율이 엄격하여 집의 맨 안쪽(일반적으로 북쪽)에서부터 대문쪽으로 서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주거 공간이 안배되었고, 가장 높은 지위의 정방(正房)은 가족의 연장자 혹은 대표자가 거주하여 가장 안쪽에 자리하였다. 이런 전통은 현재까지도 관념적으로 남아 공간 배치에 반영되고 있다(Gao, 2012).

22) 전체 주호에서 침실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43%, 중국이 44%로 나타났고, 개별침실간 면적분포(주침실: 침실2:침실3) 차이를 보면 한국은 46:28:26, 중국은 41:32:27로 한국의 주침실이 주호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Shim & Kang & Cho, 2000). 공간의 위상도도 중국에 비해 개방적인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2004).

Table 12. Private Activity Space Usage

| | | R1 | R2 | R3 | L | U | E | total |
|---------------------|---|---------------|--------------|--------------|--------------|--------------|-------------|-------|
| parents' sleeping | K | 106 (84.2) | 9 (7.1) | 9 (7.1) | 2 (1.6) | | | 126 |
| | C | 106 (73.1) | 22 (15.2) | 17 (11.7) | | | | 145 |
| children's sleeping | K | 4 (3.2) | 97 (77.0) | 24 (19.0) | 1 (0.8) | | | 126 |
| | C | 6 (4.1) | 87 (60.0) | 52 (35.9) | | | | 145 |
| children's study | K | 6 (4.8) | 65 (51.6) | 46 (36.5) | 9 (7.1) | | | 126 |
| | C | 6 (4.1) | 42 (29.0) | 67 (46.2) | 6 (4.1) | 10 (6.9) | 14 (9.7) | 135 |
| computer | K | 7 (5.6) | 33 (26.2) | 43 (34.1) | 36 (28.5) | 7 (5.6) | | 126 |
| | C | 28 (19.3) | 20 (13.8) | 50 (34.5) | 14 (9.7) | 25 (17.2) | 8 (5.5) | 145 |
| reading books | K | 47 (37.3) | 9 (7.1) | 21 (16.7) | 39 (31.0) | 8 (6.3) | 2 (1.6) | 126 |
| | C | 41 (28.3) | 15 (10.3) | 32 (22.1) | 17 (11.7) | 27 (18.6) | 13 (9.0) | 145 |

Note. R=Bed room, L=Living Room, U=Utility room, E=Etc, Bedrooms 1> Bedrooms 2>Bedrooms 3 separated by size

컴퓨터의 사용 행위는 한국과 중국 모두 침실 3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거실(28.5%)에서의 사용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국은 자녀방외에 부부침실(19.3%)과 다용도실(17.2%)에서의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경우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3인 가족구성이 보편화 되어 남은 방은 가족의 서재나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은 자녀마다 하나의 침실을 사용하며 침실공간에서 학습과 취침이 함께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의 독서행위는 한국의 경우 침실 1-거실-침실 3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침실 1-침실 3-다용도실 순으로 나타났다²³⁾.

3. 가사노동행위 공간

가사노동은 크게 세탁과 음식준비, 물건보관 행위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7가지로 구분하였다.

세탁기에 의한 세탁행위는 한국은 다용도실(46.6%)과 발코니(45.2%)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욕실(46.9%)과 발코니(32.4%)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주택 설계표준에 보면 화장실의 실내에는 세탁기의 위치가 설치

23) 중국의 자녀방의 경우, 취침과 소지품 보관의 기능이 강하며, 자녀의 실제 활동 무대로 삼는 것은 가족이 함께 모이거나 학습을 관리 받을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서재 혹은 가족실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주택은 면적이 넓을수록 거실이 한국과 같이 방들을 두루 아우르는 중심적 위치에 있지 않지 않고, 외향적 공간으로서 부엌 등과 같이 일정 용도가 끝나면 사용이 정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단독이나 고급빌라는 복층 구조가 많은데, 1층은 식당, 부엌과 거실은 정리하고 2층으로 생활을 옮겨와 가족실이나 다용도실에서 불 일을 본 후, 바로 취침을 청하기도 한다.

Table 13. Housekeeping Activity Space Usage

| | | L | K | Bt | Bc | U | E | total |
|------------------|---|--------------|--------------|--------------|---------------|---------------|--------------|-------|
| washer | K | | 3 (2.4) | 5 (4.0) | 57 (45.2) | 60 (47.6) | 1 (0.8) | 126 |
| | C | | 5 (3.4) | 68 (46.9) | 47 (32.4) | 17 (11.8) | 8 (5.5) | 145 |
| hand-wash | K | | 1 (0.8) | 62 (49.2) | 39 (31.0) | 23 (18.2) | 1 (0.8) | 126 |
| | C | | 2 (1.6) | 83 (65.4) | 20 (15.7) | 6 (4.7) | 16 (12.6) | 127 |
| drying | K | 10 (7.9) | 2 (1.6) | 1 (0.8) | 78 (61.9) | 21 (16.7) | 14 (11.1) | 126 |
| | C | | 4 (2.8) | 8 (5.5) | 104 (71.7) | 5 (3.4) | 24 (16.6) | 145 |
| ironing | K | 73 (57.9) | 1 (0.8) | | 11 (8.7) | 23 (18.3) | 18 (14.3) | 126 |
| | C | 19 (14.1) | 5 (3.7) | 16 (11.9) | 34 (25.1) | 30 (22.2) | 31 (23.0) | 135 |
| stitching | K | 61 (49.3) | 6 (4.8) | | 4 (3.2) | 27 (21.8) | 26 (20.9) | 124 |
| | C | 25 (19.2) | 6 (4.6) | 2 (1.5) | 16 (12.3) | 51 (39.2) | 30 (23.2) | 130 |
| storage | K | 4 (3.1) | 5 (3.8) | | 17 (13.1) | 94 (72.3) | 10 (7.7) | 130 |
| | C | 1 (0.7) | | 4 (2.8) | 2 (1.4) | 125 (88.6) | 9 (6.5) | 141 |
| food preparation | K | 15 (12.4) | 31 (25.6) | | 29 (24.0) | 8 (6.6) | 38 (31.4) | 121 |
| | C | | 74 (53.7) | 5 (3.6) | 13 (9.4) | 13 (9.4) | 33 (23.9) | 138 |

Note. L=Living Room, K=Kitchen, Bt=Bath Room, Bc=Bacoly, U=Utility room & Warehouse, E=Etc(Bed room, Dining room, Yard, Rooftop, Outside)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바깥화장실은 욕조를 거의 설치하지 않고, 샤워시설 없이 세면대와 변기만 설치하여 세탁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발코니나 다용도실에 중국은 화장실과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빨래는 한국과 중국 모두 화장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발코니에서의 손세탁이 한국은 중국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세탁물 건조는 한·중 양국모두 발코니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주택 설계 표준에 배란다의 옷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발코니는 단위세대 전·후면에 발코니가 감싸는 형태로 새시창호를 설치하여 내부 공간화하는 관행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발코니가 각 실에 개별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많아 한국에 비해 발코니의 용도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탁물의 다림질은 한국은 거실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발코니와 다용도실에서 행해지고 바느질은 한국과 중국 모두 거실과 다용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탁물의 정리는 한국은 거실에서 주

로 행해지고 중국은 다용도실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물품을 보관하거나 수납하는 경우 한국과 중국모두 다용도실과 발코니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가사노동 행위 중 채소 다듬는 행위는 한국과 중국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은 부엌, 발코니, 마당이나 옥상 등의 분포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부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김치를 담아 먹는 식습관으로 넓은 조리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엌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부엌을 독립된 공간의 가사작업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의례행위 공간

비 일상행위인 의례행위는 관혼상제, 회갑, 돌, 백일 등의 집안의 행사와 종교적인 모임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사와 종교적인 모임과 기도행위로 간단히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지내는 의례행위 장소로 한국은 대부분 거실(83.8%)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거실 36.7%, 외부공간 32.8%로 나타나 의례행위가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⁵⁾.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제사를 전통방식에 따라 지내는 것을 금기하고, 정책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권장하여, 한국과 같이 제사

Table 14. Ritual Activity Space Usage

| | | R | L | D | K | Y/RT | O | total |
|-------------------|---|--------------|--------------|-------------|------------|--------------|--------------|-------|
| ancestral rites | K | 10 (8.6) | 98 (83.8) | | 1 (0.8) | | 8 (6.8) | 117 |
| | C | | 47 (36.7) | 12 (9.4) | 2 (1.6) | 25 (19.5) | 42 (32.8) | 128 |
| pray space | K | 17 (15.1) | 59 (52.7) | 4 (3.6) | | | 32 (28.6) | 112 |
| | C | 7 (5.9) | 27 (22.9) | 8 (6.8) | | 18 (15.3) | 58 (49.1) | 118 |
| religious meeting | K | 1 (0.9) | 67 (63.2) | | | | 38 (35.9) | 106 |
| | C | | 38 (29.5) | 7 (5.4) | | 30 (23.2) | 54 (41.9) | 129 |

Note. R=Bed room, L=Living Room, D=Dining Room, K=Kitchen, Y=Yard, RT=Rooftop, O=Outside

24) 중국에서 부엌, 다용도실, 화장실 등은 노출되지 않는 신분이 낮은 이들이 잡업을 위한 공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집에서든 마천가지 개념으로 노동의 행위를 하는 곳에서는 노동 행위가 완성되어야 하고, 거실은 가정의 상징으로써의 입지를 갖춰야한다는 관습의 축척이라 볼 수 있다.

25) 중국의 제사는 현재 그 개념이 한국과 같이 남아있지 않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제사를 전통방식에 따라 지내는 것을 금기하였고, 이후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간소화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그 결과, 헌화(獻花), 촛불, 가정용 신주를 제작하거나, 인터넷 제사(網上祭祀), 가족 기념회식으로 간소화 하였다. 최근 특이 경향 중 하나로 인터넷 제사가 신흥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상당수의 회사들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http://baike.baidu.com> 5월 29일 검색, 祭祀/網上祭祀).

음식을 차리거나 절차를 갖춘 전통방식은 사라지게 되면서 현대생활에 맞는 추모형식으로 변화하여 굳이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모임이나 기도의 장소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주로 거실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이 또한 외부공간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외부공간에서의 의례행위가 더 높게 나타나고 한국 또한 외부공간으로 확대되어 앞으로 주택내에서의 종교적인 의례행위는 감소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거실은 가족모임, 가족단란, 접객, 의례행위, 빨래 정돈 등 전통적인 안방의 사회적 생활, 가사활동까지 흡수하여 거실이 가정내 중심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독립된 부엌은 가사노동공간이라는 개념이 명확한데 반해 한국은 부엌과 식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그 구분이 모호하고 가족공동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앞으로의 주거문화의 주체가 될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주의식과 공간사용방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학생들은 한국학생들 보다 큰 주택과 많은 방수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학생들은 교통이 편리한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선택 조건이나 중국학생들은 조용하고 깨끗한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양국 모두 편리한 교통과 근린환경, 프라이버시와 안전성 등에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반면 주택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지위 등은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한국학생들은 <도심상권과의 접근성>, <사회적 신분상징>, <동네평판>에 중국학생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두며, 중국학생들은 <공공시설 이용>, <자연환경>, <침단시설>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학생들은 거실에서 식사공간이나 부엌이 보이지 않아야 하고, 식사공간과 조리공간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학생들은 부엌과 식당은 가족단란의 장소라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에 대한 사용경험과 사용방식의 차이가 공간에 대한 태도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공간사용방식은 식사공간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식에 대한 조리방법의 차이로 중국의 독립된 부엌은 가사노동공간이라는 개념이 명확한데 반해 한국은 부엌과 식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그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

공동공간이라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은 주택에 대한 경험은 적으나 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세부 항목에 따라 관심 있는 가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주택에서의 경험과 공간사용방식에 따라 주의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으로 설문대상자가 제한된 점 그리고 평면 형태에 대한 물리적 상관분석이 배제되어 주거가치와 형태의 상관적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제한된 것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주의결과 주거가치면에서 유의미하게 파악된 항목들은 후속연구로 기획된 주거가치와 평면 형태와의 상관성 분석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강순주 · 김상희 (1997). 현대 주거. 서울: 교문사.
2. 강인호 · 한필원 (2001).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서울: 세진사.
3.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9). 공사아파트 평면계획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4. 신경주 (2005). 주거학. 서울: 기문당.
5. 안옥희 · 윤재웅 · 배정인 (1998). 주거학의 이해. 서울: 기문당.
6. 울산발전연구원 (2008). 울산시 주거기구의 주의식. 울산발전연구원부설 울산학연구소센터.
- 7.鈴木成文 (1989). 住居・集落研究の方法と課題II-討論・異文化研究のプロブレマティック. 日本建築學會研究協議會討論資料集.
8. Altman, I., & Chemers, M. (1980).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o., Brook/cole.
9. An, O., Jo, O., & Hao, J.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Viewpoi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4), 121-129.
10. An, O., & Jung, M. (1999). A Study on the Attitude about Seating Style in the house by Korean and Jap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0, 56-61.
11. Cho, E., & Lee, K. (1994). New-Generation Consumers' Housing Values: Focusing on the Housing for Newly-married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12(1), 132-144.
12. Duan, J. (2012).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partment unit plans in Korea and China*. Unpublished ma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13. Gao, C. (2012).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quadrangle emerged by residence space of modern in Beijing*. Unpublished ma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14. Hall, E. T. (1983). *Dance of Life: The Other Dimension of Time*. New York: Anchor, Doubleday.
15. Hong, Y. (2009). *Comparative Analysis: Space Feature of Korean and Chinese Apartment Floor Plans*. Unpublished ma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6. Hong, Z., & Kim, J.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Upper Class Houses in Chosun Dynasty and Myeongcheong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 23(2), 36-50.
17. Hwang, K. (2000). *Housing Values and Preferences of Adolescents in Ulsan*. Unpublished ma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18. Jang, Y. (1999). Housewives Housing Value and Hous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 *Journal of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3(2), 105-123.
 19. Jung, M., & An, O.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View of Housing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2(4), 163-171.
 20. Kang, J., & Yoon, C. (2009). Residents' Perception on Housing and Commun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5(12), 31-41.
 21. Kim, D. (2011).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Korean House and Chinese House. *Journal of the Residention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9(1), 13-24.
 22. Kim, M., & Noh, S. (2008). Housing Values and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Gwangju and the Chonnam Are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9(4), 11-20.
 23. Kim, M. (2005). *A comparative study on spatial structures of apartment housing between Korea and China*. Unpublished ma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4. Kim, S. (1996). A Preliminary Study on Housing Environment for the Proper Hous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2(11), 15-25.
 25. Kim, S. (2001). A Preliminary Study on Collaborative Housing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2(2), 1-11.
 26. Kim, S., & Lee, Y. (2000). A Study on the Interior Unit Space Plan of Apartment House for Life Style of Dwelle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2(2), 102-109.
 27. Kim, Y. (2009). Determinants of Housing Value and Housing Needs for External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12(2), 99-119.
 28. Lee, Y. (2004). *Comparison Analysis of Unit Plan Characteristic in Korea Collective Houses*. Unpublished ma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29. Liang, F.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artment unit plans according to the life environment in Korea and China*. Unpublished ma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30. Liu, G. (2007). *A Comparative Analysis on Apartment Unit Plans of Korea and China In the Context of Space syntax*. Unpublished ma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31. Liu, T. J. (2007). *The comparative study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Korean furniture and Chinese furniture in 15th-19th centu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32. Morris, E. W. & Winter, M. (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John Wiley & Sons.
 33. Park, J. (2007).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Expression applied to Contemporary Korean and Chinese Housing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1), 75-82.
 34. Rapoport, A. (1966). *The House Form and Culture*. Publisher: Prentice Hall
 35. Ryu, S. (2004). *A Study on the Planning Composition of the Apartment in BeiJing*. Unpublished ma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36. Se, K., & Xin, Y.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Development Planning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13(1), 227-250.
 37. Shim, J. (2012). The Effect of Housing Value of College Students on Housing Satisfaction and Housing Behavior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12(3), 127-151.
 38. Shim, W., Kang, S., & Jo, J. (2000). A Comparative Analysis on Housing Unit Plans of Korea, China and Japa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6(11), 53-62.
 39. Shin, H. (2004). A Study on the Housing Value of University, *Journal Natural Science*, 12, 1-10.
 40. Wu, Z. (2013).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s of unit plan of apartments which compare with Korea and China*. Unpublished mater's thesis, Inje University, Inje
 41. Yang, C. (2009). *Comparative Study of Apartment Choosing Factor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42. Yang, S., Jun, N., Hong, H., & Sohn, S. (2006). Housing Consciousness revealed from the discourse of idea housing since the enlightenment er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5), 35-48.
 43. Yim, H., Kim, J., & Kim, K. (2012). An Analysis of the Housing Values by Family Life-Cycl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8(11), 167-175.
 44. Yoon, J., & Sin, H. (1997). A study on the housing value of the university student in Taegu.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8(3), 131-139.
 45. <http://baike.baidu.com>
 46. <http://www.stats.gov.cn>(중국통계청)
 47. <http://www.chinanews.com>(中國新聞網)
 48. <http://www.globalwindow.org>(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49. <http://terms.naver.com>(네이버 지식검색)

접수일(2014. 5. 23)

수정일(1차: 2014. 7. 9)

게재확정일자(2014. 7. 22)